

전남도 모든 초중교 내년부터 무상급식

도시·농촌까지 확대...전국 첫 전면 시행
전체예산 984억원 필요 시·군도 부담

내년부터 전남 전체 초·중학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학교까지 전면 확대 시행하는 것은 전국에서 전남도가 처음이다.

전남도는 2012년부터 전남지역 읍·면·동 지역 초·중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읍·면지역 625개 초·중학교 8만1672명에 대해서만 실시 중인 무상급식을 나주·광양·순천시 등 도시지역 동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149개교 10만6455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돼 모두 774개교 18만8127명(초등 515개교 11만6000명·중등 259개교 7만2127명)에 대한 무상급식이 이뤄

지게 된다.

전남도는 무상급식을 위해 지원할 예산의 경우 올해(108억4600만원)보다 137억7800만원이 늘어나는 만큼 내년에는 모두 246억2400만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지난 2007년부터 도내 각급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면서 올해 104억원을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쓰이는 예산은 35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전남도교육청과 시·군이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하면 내년도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984억9400만원에 달한다.

전남도는 도의회가 최근 임시회에서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를 요청했지만 재정 부담을 들어 동 지역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박준영 전남지사가 이날 오전 직원 정례대회에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전체 시·군까지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적 추세를 면밀히 검토, 가능하면 내년부터 도내 전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긴급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추가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에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재정상황이 어렵지만 미래 지역 성장을 견인할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학생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단풍 절정

청명한 날씨속에 남부지방의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입동을 일주일 앞둔 1일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 산책로 주변의 나무들이 형형색색 물들어 늦가을 정취를 더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고속도로 통행료 2.9% 오른다

이달말부터...KTX 요금은 3.3% 인상

5년 동안 동결됐던 고속도로 일반 통행료가 이달 말부터 2.9% 오른다.

또 4년 동안 묶여있던 철도운임도 KTX가 3.3% 오르는 것을 비롯해 내달 중순부터 평균 2.93%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물가 상승, 유가 상승 등으로 교통 요금에 지속적인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교통요금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되지만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오르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철도요금의 경우 KTX의 요금 인상폭은 평균보다 높게 잡는 대신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 무궁화의 인상폭은 각각 2.2%, 2.0%로 최소화했다. 통근열차의 요금은 동결된다.

KTX의 경우 정차역 수가 2개 이하인 경우선 6개 열차는 A등급으로 운임을 0.6% 할증하고 호남선 등 나머지 열차는 B등급으로 해 할증률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송정리~용산 구간은 1300원이, 부산~서울은 2200원이 각각 오른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알림

제2회 호남 초·중등

영어학력평가

내일 접수 마감...신청 서두르세요

- 접수방법
광주일보홈페이지 (www.kwangju.co.kr) 11월 3일(목) 접수 마감
- 대상
광주·전남북 초·중학교 전학년 학생
- 경시대회 일시·장소
11월 12일(토) 오전 10시
광주·전남북 30개 고사장(추후발표)
- 참가비
초등학생=JET 22,000원
중학생=TOEIC bridge 29,000원
- 특전
성적우수자 부상 및 해외어학연수비 지원
- 문의
광주일보사 062-220-0555



光州日報社

나주 혁신도시 한전 신사옥 오늘 착공

신도시 건설 등 조성사업 본격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 전하는 핵심 공공기관인 한국전력 공사가 2일 착공식을 열고 신청사 건립에 착수해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본격화됐다.

비록 '2012년 준공'이라는 정부의 공언은 빗나가게 됐지만, 2만가구가 거주하는 자족형 신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관련기사 3면>

한전과 광주시, 전남도는 2일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 조성 현장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박준영 전남도지사, 강은태 광주시장, 한만

희 국토부 1차관, 김중겸 한전 사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신청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한전은 이전 인원만 1400명이 넘는 핵심 공공기관으로, 전국 152개 이전 기관 중에서 가장 크다. 신사옥 착공은 우정사업정보센터에 이어 광주·전남 혁신도시 15개(개별 이전하는 해양경찰학교 제외) 이전 기관 중 두 번째다.

한전 신사옥은 14만9372㎡의 면적에 지하 2층~지상 31층(연면적 9만3222㎡) 규모로, 오는 2014년 8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애초 광주·

전남 최고층인 41층으로 짓겠다는 구상이었으나 호화청사 논란 등으로 축소했다. 대표 에너지 기업인 한전은 이 사옥을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각종 에너지 저장 신기술을 도입해 친환경 녹색 빌딩을 구현, 최고의 에너지 랜드마크로 지을 계획이다.

한전은 신사옥 건설 준비를 위해 나주에 '신사옥 건설소'를 지난 8월16일 마련하고 전문인력 5명을 상주시켰다. 시공사인 대우건설도 지난 4일부터 현장소장 등 핵심 인력을 현장에 파견해 착공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 062) 605-1115

우암학원 창학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2011년 11월 2일, 한국전력 신사옥 착공 한국전력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에너지 명품 신사옥을 착공합니다

에너지 소비형 건물에서 에너지 생산형 건물로,
한국전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 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